세계 스타 선수들 광주서 셔틀콕 승부 펼친다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오늘 개막…17일까지 열전

20개국 200여명 참가…안세[영 2개 국제대회 연속 우승 도전

세계 정상급 배드민턴 선수들의 셔틀콕 승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승인 그랑프리 골드 시리즈급 대회인 2022 광주 요넥스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12~17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 열리는 광주코리아마스터즈는 BWF 월드투어 슈퍼 300등급 대회다. 국내 선수 300여 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일본 등 20개국에서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남자단식, 여자단식, 납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5종목이 치러지며 대회 총상금은 18만 달러(2억 1000만원)다.

대회에서는 여자단식에 출전하는 안세영(삼성생명)이 주목받고 있다. 안세영은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이어 2주 연속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 2019년 대회에서 현 국가대표 코치인 성지현을 꺾고 우승한 안세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2연패를 노린다.

지난주 코리아오픈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코리아오픈에 함께 출전했던 김가은(삼성생명)은 물론 천위페이(중국)와 포른파위 초추웡(태국), 여자민(싱가포르) 등 세계 강호들과 다시 맞붙는다.

코로나19 문제로 코리아오픈 출전을 포기했던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과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이 나서는 여자 복식에서도 한국의 우승이 기대된다.

코리아오픈에서 우승한 정나은(화순군청)-김혜정(삼성생명)과 2018년 코리아마스터즈 우승팀인 장예나-정경은(이상 김천시청)의 출전도 확정되면서 이번 대회 여자 복식 경기에서는 한국 선수끼리의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한 남자 복식 서승재(국군체육부대)-강민혁(삼성생명)도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을 벼르고 있다.

코리아오픈에서 노메달에 그친 남자 단식엔 허광희(삼성생명)와 이동근(당진시청), 손완호, 김동훈(이상 밀양시청)이 출전해 명예 회복을 노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10일 순천에서 열린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 /연합뉴스

수창초 야구 우승…광주대표로 소년체전 간다

수창초가 최근 첨단야구장에서 진행된 제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겸 제9회 광주수완센트럴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수창초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대표 자격을 얻었다.

수창초는 최근 첨단야구장에서 끝난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 대회 겸 제9회 광주수완센트럴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수창초를 비롯해 송정동초, 학강초, 서림초, 대성초, 화정초, 서석초 등 7개 야구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우승을 다퉜다.

수창초는 첫 경기에서 서림초를 7-2로 꺾은 뒤 송정동초와의 승부에서는 16-1, 4회 콜드게임승을 완성했다.

학강초와의 경기도 12-1, 4회 콜드게임승으로 마무리한 수창초는 준결승에 만난 화정초를 4-3으로 제압하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수창초는 학강초와 벌인 대회 결승에서 15-2로 대승을 거두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와 함께 수창초는 5월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충장BC와 함께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첨단야구장에서 2022년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겸 춘계 대회가 진행된다.

◇대회 시상 내역

▲우승 : 수창초 ▲준우승 : 학강초 ▲최우수선수상 : 장인서(수창초) ▲우수투수상 : 조현익(수창초) ▲타격상 : 노찬민(7타수 6안타 0.857·수창초) ▲최다도루상 : 노지홍(5개·대성초) ▲최다타점상 : 조성찬(15타점·수창초) ▲감투상 : 박겸(학강초) ▲미기상 : 최지민(학강초) ▲감독상 : 류창희 감독(수창초) ▲지도상 : 박인균 코치(수창초)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민정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4관왕

1000m·3000m 금메달 '종합우승'…3000m 계주도 우승

최민정(왼쪽)이 11일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3000m 슈퍼파이널에서 캐나다의 킴 부탱을 앞지르며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4관왕에 오르며 4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민정은 1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000m와 여자 3000m 슈퍼 파이널에서 1위에 등극했다.

그는 전날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1500m 성적을 합쳐 랭킹 포인트 107점을 획득, 캐나다의 킴 부탱(84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최민정이 세계선수권대회 왕좌를 차지한 건 2015년, 2016년, 2018년에 이어 4번째다.

아울러 최민정은 개인전 종합랭킹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역전 레이스를 이끌며 우승, 이번 대회에서만 금메달 4개를 휩쓸었다.

최민정이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종목은 여자 500m뿐이다.

최민정은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27초95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레이스 중반까지 4위를 지키던 최민정은 결승선을 3바퀴 남기고 주특기인 '아웃코스 질주'로 앞선 선수들을 제쳤다.

2위로 올라선 최민정은 결승선을 2바퀴를 남기고 1위 킴부탱마저 따돌렸다. 직선 주로에서 인코스를 노려 절묘하게 선두 자리를 뺏었다.

이후 최민정은 여유롭게 결승선을 끊으며 금메달을 수확했다.

최민정은 개인 종목 상위 8명의 선수가 뛰는 여자 3000m 슈퍼파이널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레이스 초반 체력을 비축한 최민정은 결승선을 5바퀴 남기고 1위 자리를 꿰찼고, 이후 속력을 올려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최민정은 레이스 막판 킴부탱의 추격을 뿌리치고 5분5초64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달했다.

함께 뛴 서휘민(고려대)은 5분6초840으로 동메달을 땄다. 심석희(서울시청)는 7위에 그쳤다.

최민정은 개인 종합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4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체육중 태권도 전국 최강…종별선수권 금 3·동 5

광주체육중학교 태권도부가 전국 최강 실력을 선보였다.

11일 광주 체육중학교에 따르면 태권도부가 최근 경북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광주체중은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서 선전해 오는 5월에 열리는 제51회 전국소년체전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찬호(1년)는 남중부 웰터급 결승에서 상대를 20점차 이상으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안성민(2년)은 남중부 밴텀급 결승에서 인천계산중 선수를 14-12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성민은 32강부터 결승까지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압박으로 손쉽게 결승무대에 진출했다.

김민송 (2년)은 여중부 라이트급 결승에서 대구 복현중 선수를 14- 9로 제압, 1위에 올랐다.

여중부 밴텀급, 라이트미들급, 헤비급에서도 윤지민(2년), 박윤지(1년), 백승연(1년), 전영선(1년)이 동메달을 획득했고 남중부 핀급 이민준(2년)도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체육중 태권도부 선수들. 이민준(왼쪽부터), 윤지민, 안성민, 김민송. 〈광주체육중 제공〉

광주체육중 이준재 교장은 "올 초에 교내 코로나19 확진학생이 다수 발생해 훈련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심리방역을 지원하고 훈련 여건 조성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은 노력을 통해 훈련을 정상화하고 선수들도 구슬땀을 흘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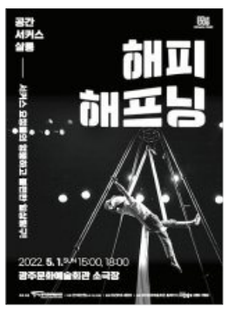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비우스
2관	모비우스
3관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
4관	스텔라
5관	앰뷸런스
6관	앰뷸런스
9관	수퍼 소닉 2, 스텔라
7관 씨네커플	뜨거운 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8관 씨네커플	불도저에 탄 소녀, 더 배트맨, 극장판 주술회전 0, 배니싱: 미제사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해피 해프닝
일시 : 2022.05.01.(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 2022.04.27.(수)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